

GIST 설립 32주년...새 정문과 함께 미래 도약

‘개방·소통·혁신’ 철학 담아 미래 비전 랜드마크로
공모로 디자인 선정...고 김경웅 교수 추모공로패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최근 오희관 1층 다목적홀에서 설립 32주년 기념식을 정문 행사장과 오희아트홀에서 정문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GIST가 지난 32년간 과학 기술 인재를 길러내고, 국가 과학기술과 지역사회·산업계 발전, 국제 공동연구 확대에 기여해 온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도약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을 다지는 의미를 지녔다.

특히 설립 32주년을 맞아 완공된 새로운 정문은 GIST의 개방성과 혁신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랜드마크로, 지역사회와 동문, 기부자에게 열린 캠퍼스로 나아가겠다는 GIST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정문은 포스코의 기술 지원 아래,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지엔엠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N스틸이 시공했다. 지상·학문·열정·젊음을

상징하는 네 개의 기둥에 승리의 ‘V’자 형태로 G·I·S·T 글자가 새겨진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 설계됐으며, 스테인리스 스틸 외장재가 빛과 주변 경관을 반사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GIST’를 형상화한다.

설립 32주년 기념식에서는 환경·에너지공학과 고(故) 김경웅 교수의 학문적 열정과 헌신을 기리는 추모공로패가 수여됐다.

김 교수는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1997년 GIST 부임 이후 28년간 교육·연구 및 국제협력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최근 글로벌 학술정보 분석기업 엘스비어와 미국 스탠퍼드대학교가 공동 발표한 ‘2025 세계 상위 2% 연구자’명단에 5년째 오르며 업적이 재조명됐다.

그는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지역에 전기 없이 작동하는 정수 시스템을



광주과학기술원은 최근 오희관 1층 다목적홀에서 설립 32주년 기념식을 정문 행사장과 오희아트홀에서 정문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N스틸 배종민 회장, GIST 임기철 총장 및 주요 보직자, 지스트발전재단 최은모 이사장과 지역 경제·산업계 인사, 동문, 기부자,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해 GIST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지원하는 ‘응달샘 프로젝트’를 추진해 무동력 수처리 장치 ‘GIST 희망정수기’를 개발해 네팔·인도네시아·필리핀 등 20여 개국에 보급하며,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임기철 총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32년 동안 GIST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힘을 보태 주신 모든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새롭게 조성된 캠퍼스 공간과 도약 사업들을 계기로 교육·연구

·산학협력의 혁신을 더욱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새롭게 조성된 GIST 정문의 준공 기념식이 진행됐다. 새 정문은 단순한 출입 시설을 넘어

GIST의 개방·소통·혁신 철학을 담은 상징하는 건축물로, 방문객이 캠퍼스를 마주하는 첫 순간에 브랜드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따뜻한 동행 ‘힐링 나들이’로 마음을 잇다

신안군 임자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최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주민들 ‘호응’

신안 임자면 지역사회가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마음 전달과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신안군에 따르면 임자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지역 내 문화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내 고장 명소 체험활동인 ‘배낭 메고! 자유여행!’ 나들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따뜻한 지역 공동체의 의미를 더했다.

2세 영유아부터 82세 어르신까지 다문화 가족과 홀몸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통합의 장이 됐다.

참가자들은 압해 분재정원, 목포 해상케이블카, 1004 요트투어 등을 경험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했다.

임자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행사에 동행하며 이동 지원, 안전 관리,



임자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지역 내 문화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 고장 명소 체험활동인 ‘배낭 메고! 자유여행!’ 나들이를 개최했다.

건강 체크 등 참가자들이 불편함 없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돌봄을 제공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나들이를 도왔다.

지난해 처음 시작돼 지역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이 프로그램은 올

해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2025년 신안군 복지재단 우수복지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로 평가된다.

유역권 임자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

간위원장들은 “이번 나들이가 일상생활에 지친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신임 해양경찰관, 새 각오 다짐 ‘입해식’

해양경찰교육원(원장 한상철)

은 최근 4주간 입교훈련을 마무리한 제253기 신임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바다를 마주하고 다짐하는 입해식을 실시했다.

대상자들은 2025년 상반기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찰 39명을 포함한 275명이며, 10월 19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해 강인한 체력과 반듯한 인성을 위한 4주간의 입교훈련을 완료했다.

입해식은 학생과(인성리더십센터)에서 입교훈련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일반인에서 예비 해양경찰관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희망의 바다’를 위한 사명을 안고 처음 마주하는 바다를 보며 국민에 대한 봉



사 의지를 다지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이다.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직접 느껴보며 해양경찰로 스스로 다짐을 외치는 시간을 가진 후 깨끗한 바다를 위한 해양경찰활동을 이어갔다.

여수=송원기 기자 swg3318@gwangnam.co.kr

‘과학하는 엄마들-Chat GPT 활용법’ 성료

광주과학관, AI 그림 그리기 등 실습 중심 교육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경구)의 ‘제5기 과학하는 엄마들-자녀 교육에 힘이 되는 인공지능(AI), ChatGPT 활용법’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국립광주과학관이 인공지능(AI)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됐다. 20명 정원 모집이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지도학습, ChatGPT 활용법, 인공지능 음악 만들기, 인공지능 그림 그리기 등으로 실습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번 5기 과정은 지난 4기 운영 당시 높은 만족도와 재개설 요청에 힘입어 마련된 앵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AI를 활용해 보며 자녀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과학관은 내년에도 인공지능 활용 기초 소양교육과 심화과정을 추가 개설해



국립광주과학관의 ‘제5기 과학하는 엄마들-자녀 교육에 힘이 되는 인공지능(AI), ChatGPT 활용법’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과학하는 엄마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인공지능 역

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기독병원, QPS 성과발표회 개최

광주기독병원은 최근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결과를 공유하는 ‘QPS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각 부서가 연중 추진한 다양한 개선활동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부, 진료지원부서, 행정부, 관리과 등 많은 부서가 참여해 총체적인 환자안전 문화 확산을 이뤘다. 부서별 QPS 결과를 모아 정리한 ‘QPS 활동 사례집’을 함께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총 19개의 다양한 주제의 실천 사례가 실렸으며, 실제 진료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들이 제시됐다.

광주기독병원은 이번 활동을 통해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이 강화되고, 병원 전반에 환자안전 중심의 조직문화가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욱 병원장은 “단순한 업무 효율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앞으로도 병원은 안전한 진료환경과 표준화된 의료서비스, 지속 가능한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게시판

알림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상담,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

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모집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지매에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신창동 보은사 목련향찰 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부음 ▲김태규(전남매일 사진부 국장) 별세=11월 16일, 빈소 : VIP장례타운 VVIP 301호, 발인 : 11월 18일 오전 9시 30분.

운세 (음력 9월 28일)

쥐 49년생 오늘 집에 있는 것이 좋다
60년생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해결하자
72년생 자금 융통이 순조로워 질 것
84년생 사고가 우려되니 외출을 미룰 것
96년생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보라

토끼 51년생 번거롭더라도 직접 진행해야 마땅
63년생 신경 써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75년생 집 장만 할 좋은 기회
87년생 양보하면 탈이 없을 것
99년생 가족들에게 속사정을 털어 놓아라

말 54년생 떠난 것에 미련을 갖지 말 것
66년생 인간 함을 쓰고 있는 흐름
78년생 무리 따르다행하지 않아야
90년생 주위의 인정을 받는다

개 57년생 도움을 청하면 고인이 해결될 수 있다
69년생 매대는 손재수를 불러 들일 수 있다
81년생 주변에서 협력자가 많이 나타난다
93년생 돈소문은 돈소문으로 끝난다

소 49년생 자녀 간에 문제는 해결 될 것
61년생 투자 아끼지 않으면 재물운이 있을 것
73년생 미리 챙겨두는 습관이 필요
85년생 동료를 맞지 말 것
97년생 친구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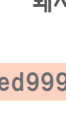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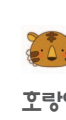
황소 52년생 중된 것에 관심을 둘 수 있겠다
64년생 파임에 빠져 손해를 우려 있으니 조심
76년생 자존심 싸움을 하지 말 것
88년생 형제와 서둘러 화해하라

양 55년생 지금까지는 작업, 이루기 어렵겠다
67년생 강풍이 집을 흔들고 가정이 불안하다
79년생 말이 급하면 불리하고 느리면 길하다
91년생 데이트 다음으로 마르는 것이 좋다

말 58년생 가족들을 우선 선택하라
70년생 여러 측면으로 가능해 볼 필요 있다
82년생 낭비하지 말고 큰 일에 몰두
94년생 새 계획 설계할 때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호랑이 50년생 가는 날이 장날이다
62년생 기본적인 형식을 중시해야 한다
74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니 물러서라
86년생 아무런 의미가 없다
98년생 능력 과시는 금물

띠 53년생 주식 투자유혹을 과감히 떨치자
65년생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금물
77년생 가을 끝에 오는 비
89년생 교통 법규 잘 지켜라

원숭이 56년생 원리 원칙으로 진행
68년생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
80년생 마음을 달래 줄 이성이 찾아온다
92년생 이상형을 찾지만 만나기가 쉽지 않다

돼지 59년생 시일이 결될 수 있다
71년생 포상이나 승진수 있다
83년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도를 조절
95년생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은 특별하다